

어휘의 일관성에 대한 제언

- ‘프뉴마($\pi\nu\epsilon\upsilon\mu\alpha$)’, ‘사르크스($\sigma\acute{\alpha}\rho\chi\iota$)’ 번역을 중심으로-

최갑종*

1. 들어가는 말

성경 번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원문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번역 대상인 원문 성경은 물론, 번역하는 어휘, 문법, 용법, 문장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경 원어에 능통하다고 하더라도, 진작 번역 언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거나, 아무리 탁월한 언어학자라고 하더라도 성경 원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할 수 없다.¹⁾

그런데 성경 번역은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문화권 사람에게 고정될 수 없다. 고고학적 발견 등으로 원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왔을 뿐 아니라, 번역 언어 역시 시대나 문화의 변화에 그 의미와 용법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번역이 특정한 시대나 문화권의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거나 종결될 수 없고, 시대나 문화의 변이에 따라 새로운 번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널리 사용되어왔던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개정하는 준비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또한 당위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개역

* University of Denver & Iliff School of Theology에서 성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미국 Evangelia University 신약학 교수. gchoi@evangelia.edu.

1) 박창해, “성경 번역문의 문체와 문체”, 「성경원문연구」 13 (2003), 8을 보라.

개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필자는 이 글에서 『개역개정』 개정 번역 담당자들에게 한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가능한 한 번역 어휘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휘의 일관성 유지는 원어 성경의 어떤 어휘를 획일적으로 똑같은 우리말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어휘라고 할지라도 성경 저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심지어 같은 저자의 어휘라도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같은 장소와 문맥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 동일 어휘를 마치 다른 의미를 가진 어휘처럼 번역하거나, 동일한 어휘를 번역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어휘로 번역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것이다.²⁾ 이제 필자는 어휘의 일관성 유지와 관련하여 『개역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신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르크스(σάρξ)’와 ‘프뉴마(πνεῦμα)’ 번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언하려고 한다.

2. 데이터와 그 문제점

그리스어 성경 네스틀레 알란트 28판(NTG²⁸) 본문에 따르면 신약성경에 ‘사르크스(σάρξ)’는 147회, ‘프뉴마(πνεῦμα)’는 379회 나타난다. 권위 있는 그리스어 사전인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³⁾에 따르면, ‘사르크스’는 1) 사람 혹은 동물의 골격을 형성하는 육체(flesh), 2) 신체(body), 3) 육체를 가진 사람(person, human being), 4) 인간 본성(human nature), 5) 사람의 외면적 삶(the outward side of life) 등 다섯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에 ‘프뉴마’는 1) 바람 혹은 숨(wind, breathing), 2) 육체에 생명을 주는 기운(breath, life-spirit), 3) 사람의 인격의 한 부분인 영(spirit), 4) 비물질적인 존재인 영(spirit), 5)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영(the Spirit), 6) 사람

2) 예를 들면, 신약에는 창 2:24의 인용이 마 19:5; 막 10:7-8; 고전 6:16; 엡 5:31에 나타난다. 이 구절들을 보면 신약성경 저자들은 히브리 본문에 나타나는 ‘바살(בָּשָׂר)’을 다 같이 ‘사르크스(σάρξ)’로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번역자는 이를 ‘몸’으로,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번역자는 ‘육체’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모두 ‘몸’으로, NIV, NAS, NRS는 모두 ‘flesh’로 번역하여 어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3) W. Bau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6th. ed.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914-916, 832-836.

들의 활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7) 초월적인 독립적인격으로서 성령(the Spirit)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개역개정』은 ‘사르크스’와 ‘프뉴마’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먼저 ‘사르크스’의 경우를 보자.

1) 복음서: 마태복음(5)⁴⁾은 ‘육’(16:17), ‘몸’(19:5, 6), ‘육체’(24:22), ‘육신’(26:41)으로, 마가복음(4)은 ‘몸’(10:8, 8), ‘육체’(13:20), ‘육신’(14:38)으로, 누가복음(2)은 ‘육체’(3:6), ‘살’(24:39)로, 요한복음(13)은 ‘육정’(1:13), ‘육신’(1:14), ‘육’(3:6, 6; 6:63), ‘육체’(8:15), ‘사람’(17:2), ‘살’(6:51, 52, 53, 54, 55, 56)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2) 사도행전(3)은 ‘육체’(2:17, 26), ‘육신’(2:31)으로 번역한다.

3) 바울서신: 로마서(26)는 ‘육신’(1:3; 2:28; 4:1; 6:19; 7:5, 18, 25; 8:3[×3], 4, 5[×2], 6, 7, 8, 9, 12, 13; 9:5, 8; 13:14), ‘육체’(3:20), ‘골육’(9:3; 11:14)으로, 고린도전서(11)는 ‘육체’(1:26, 29; 6:16; 15:39[×4]), ‘육신’(5:5; 7:28; 10:18), ‘육’(15:50)으로, 고린도후서(11)는 ‘육체’(1:17; 4:11; 7:5; 10:2; 12:7), ‘육신’(5:16[×2]; 10:3[×2]; 11:18), ‘육’(7:1)으로, 갈라디아서(18회)는 ‘육’(1:16), ‘육체’(2:16, 20; 3:3; 4:13, 14, 23, 29; 5:13, 16, 17[×2], 19, 24; 6:8[×2], 12, 13)로, 에베소서(9)는, ‘육체’(2:3[×2], 11[×2], 14; 5:29, 31; 6:5), ‘육’(6:12)으로, 빌립보서(5)는 ‘육신’(1:22, 24), ‘육체’(3:3, 4[×2])로, 골로새서(9)는 ‘육체’(1:22, 24; 2:13, 23), ‘육신’(2:1, 5, 18; 3:22), ‘육’(2:11)으로, 디모데전서(1)는 ‘육신’(3:16)으로, 빌레몬서(1)는 ‘육신’(1:16)으로 각각 번역한다.

4) 공동서신: 히브리서(6)는 ‘육’(2:14), ‘육체’(5:7; 9:10, 13; 10:20), ‘육신’(12:9)으로, 야고보서(1)는 ‘살’(5:3), 베드로전서(7)는 ‘육체’(1:24; 3:18, 21; 4:1[×2], 6), 베드로후서(2)는 ‘육체’(2:10, 18)로, 유다서(3)는 ‘육체’(1:7, 8, 23)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5) 요한 문헌: 요한1서(2)는 ‘육신’(2:16), ‘육체’(4:2)로, 요한2서(1)는 ‘육체’(1:7), 그리고 요한계시록(7)은 모두 ‘살’(17:16; 19:18[×5], 21)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이를 빈도수 별로 보면, ‘육체’(73), ‘육신’(45), ‘살’(15), ‘육’(10), ‘몸’(3), ‘골육’(2), ‘육정’(1), ‘사람’(1) 순이며, 동일한 어휘인 ‘사르크스’가 8개의 다른 말로 번역되고 있다.

그다음 ‘프뉴마’의 경우를 보자.

1) 복음서: 마태복음(19)은 ‘성령’(1:18, 20; 3:11, 16; 4:1; 10:20; 12:28, 31, 32; 22:43; 28:19), ‘심령’(5:3), ‘귀신’(8:16; 10:1; 12:43, 45), ‘영’(12:18), ‘마

4) 이하 ()의 숫자는 빈도수를 가리킴.

음'(26:41), '영혼'(27:50)으로, 마가복음(23)은 '성령'(1:8, 10, 12, 23; 2:29; 12:36; 13:11), '중심'(2:8), '마음'(8:12; 14:38), '귀신'(1:23, 26, 27; 3:11, 30; 5:2, 8; 6:7; 7:25; 9:17, 20, 25[×2])으로, 누가복음(36)은 '성령'(1:15, 35, 41, 67; 2:25, 26, 27; 3:16, 22; 4:1[×2], 14, 18; 10:21; 11:13; 12:10, 12), '심령'(1:17, 80), '귀신'(4:33, 36; 6:18; 7:21; 8:2, 29; 9:39, 42; 10:20; 11:24, 26; 13:11), '영'(8:55; 24:37, 39), '마음'(1:47), '영혼'(23:46)으로, 요한복음(24)은 '성령'(1:32, 33[×2]; 3:5, 8, 34; 7:39[×2]; 14:26; 15:26; 16:13; 20:22), '영'(3:6[×2]; 4:23, 24[×2]; 6:63[×2]; 14:17), '바람'(3:8), '심령'(11:33; 13:21), '영혼'(19:30)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2) 사도행전(70)은 '성령'(1:2, 5, 8, 16; 2:4[×2], 33, 38; 4:8, 25, 31; 5:3, 32; 6:3, 5, 10; 7:51, 55; 8:15, 17, 18, 19, 29; 9:17, 31; 10:19, 38, 44, 45, 47; 11:12, 15, 16, 24, 28; 13:2, 4, 9, 52; 15:8, 28; 16:6; 19:2[×2], 6; 20:22, 23, 28; 21:4, 11; 28:25), '영'(2:17, 18; 5:9; 8:39; 16:7; 23:8, 9), '귀신'(5:16; 8:7; 16:16, 18; 19:12, 13, 15, 16), '영혼'(7:59), '마음'(17:16), '열심'(18:25)으로 번역하고 있다.⁵⁾

3) 바울서신: 로마서(34)는 '성령'(5:5; 8:2, 16, 23, 26[×2], 27; 9:1; 14:17; 15:13, 16, 19, 30), '영'(1:4; 2:29; 7:6; 8:4, 5[×2], 6, 9[×3], 10, 11[×2], 13, 14, 15[×2], 16), '심령'(1:9; 11:8)으로,⁶⁾ 고린도전서(40)는 '성령'(2:4, 10[×2], 13, 14; 3:16; 6:11, 19; 12:3, 4, 7, 8[×2]; 12:9[×2], 11, 13[×2]), '영'(2:11[×2], 12[×2]; 5:3, 4, 5; 6:17; 7:34, 40, 12:3, 10; 14:2, 12, 14, 15[×2], 16, 32; 15:45), '마음'(4:21; 16:18)으로, 고린도후서(17)는 '성령'(1:22; 5:5; 6:6; 12:18; 13:13), '영'(3:3, 6[×2], 8, 17[×2], 18; 7:1; 11:4), '심령'(2:13), '마음'(4:13; 7:13)으로, 갈라디아서(18)는 '성령'(3:2, 3, 5, 14; 4:29; 5:5, 16, 17[×2], 18, 22, 25[×2]; 6:8[×2]), '영'(4:6), '심령'(6:1, 18)으로, 에베소서(14)는 '성령'(1:13, 18, 22; 3:5, 16, 22; 4:3, 4, 30; 5:18; 6:17, 18), '영'(1:17; 2:2), '심령'(4:23)으로, 빌립보서(5)는 '성령'(1:19; 2:1; 3:3), '마음'(1:27), '심령'(4:23)으로, 골로새서(2)는 '성령'(1:8), '심령'(2:5)으로, 데살로니가전서(5)는 '성령'(1:5, 6; 4:8; 5:19), '영'(5:23), 데살로니가후서(3)는 '성령'(2:13), '영'(2:2), '기운'(2:8)으로, 디모데전서(3)는 '성령'(4:1[×2]), '영'(3:16), 디모데후서(3)는 '성

5) 행 19:21에도 '프뉴마' 어휘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물론 『표준』, 『새번역』, 『공동』,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이에 대한 번역을 생략하고 있다. 하지만 NRS, NAS는 '프뉴마'를 "the Spirit"으로 번역하고 있다.

6) 롬 12:11에도 '프뉴마'가 사용되고 있지만, 『개역개정』, 『공동』,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역시 이에 대한 번역을 생략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 『표준』, 『새번역』은 '프뉴마'를 "성령"으로, NAS, NRS는 "in the spirit"으로 번역하고 있다.

령'(1:14), '마음'(1:7), '심령'(4:22)으로, 디도서(1)는 '성령'(3:5)으로, 빌레몬서(1)는 '심령'(1:25)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4) 공동서신: 히브리서(12)는 '성령'(2:4; 3:7; 6:4; 9:8, 14; 10:15, 29), '영'(1:14; 4:12; 12:9, 23), '바람'(1:7)으로, 야고보서(2)는 '성령'(4:5), '영혼'(2:26)으로, 베드로전서(8)는 '성령'(1:2, 12), '영'(1:11, 18, 19; 4:6, 14), '심령'(3:4), 베드로후서(1)는 '성령'(1:21)으로, 유다서(2)는 '성령'(1:19, 20)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5) 요한 문헌: 요한1서(12)는 '성령'(3:24; 4:13; 5:6[×2], 8), '영'(4:1[×2], 2[×2], 3, 6[×2])으로, 요한계시록(24)은 '성령'(1:10; 2:7, 11, 17, 29; 3:6, 13, 22; 4:2; 14:13; 17:13; 21:10; 22:17), '영'(1:4; 3:1; 4:5; 5:6; 16:13, 14; 18:2; 19:10; 22:6), '생기'(11:11), '우상'(13:15)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이를 빈도수 별로 다시 정리하면, '성령'(205), '영'(98), '귀신'(37), '심령'(16), '마음'(10), '영혼'(5), '바람'(2), '열심'(2), '기운'(1), '생기'(1), '우상'(1)이며, 동일 단어 '프뉴마'가 11개의 다른 어휘로 번역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역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동일한 '사르크스'가 '육체', '육신', '육', '살'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그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역자는 같은 2장에서 '사르크스'를 '육체'와 '육신'으로, 요한복음 역자 역시 같은 6장에서 '사르크스'를 '살'과 '육'으로, 로마서 역자는 '사르크스'를 주로 '육신'(23/26회)으로, 반면에 갈라디아서 역자는 '사르크스'를 주로 '육체'(17/18)로, 베드로전·후서 역자 역시 모두 '육체'(9/9)로, 요한 문헌 저자는 주로 '살'(13/23)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

2)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역자는 창세기 2:24의 인용구에 나오는 '사르크스'를 '몸'으로, 반면에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역자는 '육체'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 『새번역』,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은 모두 "몸"으로, NIV, NAS, NRS는 모두 "flesh"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3)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역자는 "더러운"(ἀκάθαρτος), 혹은 "악한"(πονηρός), '프뉴마(πνεῦμα)'를 '더러운 귀신' 혹은 '악한 귀신'으로, 반면에 요한계시록 역자는 "더러운" '프뉴마'를 "더러운 영"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미 공관복음에는 일반적으로 '귀신'을 지칭하는 '다이모니온(δαίμόνιον)'이 47회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공관복음 역자들은 '프뉴마'와 '다이모니온'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같은 어휘로 번역하고 있다.

4) 번역자에 따라 '프뉴마'를 '성령' 혹은 '영'으로 번역하는데, 그 기준

역시 모호하다. 예를 들면 ‘프뉴마’와 ‘사르크스’의 날카로운 대립 관계를 말하는 로마서 8:5-6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로, 반면에 동일한 대립 관계를 말하는 갈라디아서 5:17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5) 심지어 정확하게 같은 어휘에도 불구하고 번역자에 따라 다른 어휘로 번역 되는 경우도 있다. 즉 ‘프뉴마 테우(πνεῦμα θεοῦ)’가 어떤 곳(마 3:16; 12:28; 고전 3:16; 6:11)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곳(롬 8:14; 고전 2:11; 7:40; 12:3; 고후 3:3; 벧전 4:14)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프뉴마 퀴리우(πνεῦμα κυρίου)’가 어떤 곳(눅 4:18)에는 “주의 성령”으로, 다른 곳(행 5:9; 8:39; 고후 3:17)에서는 “주의 영”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⁷⁾

3. 나가는 말: 개정에 대한 제언

이상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프뉴마’와 ‘사르크스’ 어휘를 중심으로 동일한 그리스어 어휘가 번역자에 따라 각각 다른 어휘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 다른 어휘는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휘도 조사해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 번역 어휘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할 때 원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 본문을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사르크스’가 여러 번 ‘뉘’ (예, 마 19:5, 6; 막 10:8)으로, ‘프뉴마’가 ‘마음’ (예, 마 26:41; 막 8:12; 행 17:16; 고전 4:21; 16:18; 고후 4:13; 7:13; 빌 1:27; 딤후 1:7)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미 신약성경에서 ‘뉘’와 ‘마음’에 대한 일반적인 어휘인 ‘소마(σώμα)’와 ‘카르디아(καρδία)’가 각각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사르크스’가 ‘소마’와, ‘카르디아’가 ‘프뉴마’와 같은 어휘처럼 번역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번역을 뛰어넘는 일종의 해석이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개정에 있어서 어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7) 하지만 NIV, NAS, NRS는 ‘프뉴마 테우’를 “the Spirit of God”으로, ‘프뉴마 퀴리우’를 “the Spirit of the Lord”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1) ‘프뉴마’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할 경우 ‘영’보다 ‘성령’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2) 바울서신에서 ‘사르크스’와 ‘프뉴마’가 서로 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맥에서는 ‘영’과 ‘육신’(로마서)으로 번역하거나, ‘성령’과 ‘육체’(갈라디아서)로 번역하기보다는 ‘성령’과 ‘육’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프뉴마’가 새 시대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르크스’가 인간의 육체를 대변하기보다 옛 시대의 세력을 대변하기 때문이다.⁸⁾

3) 공관복음에 자주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되고 있는 ‘타 프뉴마 토 아카달톤(τὸ πνεῦμα τὸ ἀκάθαρτον)’은 그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귀신의 명칭 ‘타 다이모니아(τὰ δαιμόνια)’와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의 경우처럼 ‘더러운 영’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⁹⁾

4) 같은 구약 본문 인용 경우 동일한 어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¹⁰⁾

5) 사도행전 19:21와 로마서 12:11에 보면 ‘프뉴마’에 대한 번역이 설명 없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를 살려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로, 『개역개정』¹¹⁾은 사도행전 19:21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로, 로마서 12:11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로 성령 어휘를 빼고 번역하고 하다. 하지만 박창해는 그의

8) 바울서신에서 종종 “성령”(“영”)과 “육”(“육체”)의 대조는 헬라적인 수직적 개념의 인간론적인 “영”과 “육체”의 대조가 아닌 히브리적인 지평적 개념의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E. Ellwein,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219-220; P. Stuhlmacher, *Paul's Letter to the Romans*, S. J. Hafemann, trans. (Edinburgh: T & T Clark, 1994), 120-122; R. Jewett, *Rom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486, 491; D. J. Moo, *The Letter to the Romans*, Secon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2018), 508-509; T. R. Schreiner, *Romans*, Second Edi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8), 405를 보라. 역시 TDNT VI, 428-430; TDNT VII, 131-134; W. B. Russel, “Paul's Use of ἀρξ and πνεῦμα in Galatians 5-6 in Light of the Argument of Galatians”, Ph.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1), 1-41; 고든 D. 피, 『바울서신의 성령론: 하나님의 능력주시는 입재』, 상권, 박규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789-791; 최갑중, 『갈라디아서』 (서울: 이레서원, 2016), 588-591. 그런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이 경우 ‘사르크스’를 ‘몸뚱이’로, ‘프뉴마’를 ‘성령’으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사람의 신체를 지칭하는 ‘몸뚱이’는 본문에서 ‘사르크스’와 ‘프뉴마’의 종말론적-구속사적 대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9) 참고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양자를 구분하여 전자를 ‘더러운 영’으로, 후자를 ‘귀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10) 대부분의 영어 성경(예, NIV, NAS, NRS)은 동일한 구약 인용 번역의 경우 동일한 어휘로 번역하고 있다.

11) 역시 『표준』, 『새번역』, 『공동』,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등.

『바른말로 옮긴 신약 전서』 수정판에서, 사도행전 19:21을 “그런 일이 있는 뒤에,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서,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하고 말하였도다”로, 로마서 12:11을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십시오”로 성령 어휘를 모두 살려 번역하고 있다.¹²⁾

(투고 일자: 2022년 6월 5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5일)

12) 『표준』과 『새번역』 역시 ‘프뉴마’를 살려 “**성령으로**”로 번역하고 있다.